첨단과학영농 통한 농산물 생산

익산시, 토양검진 무상 서비스… 비용절감 · 친환경 고품질 생산 · 환경보전 '일석사조'

익산시가 농경지 토양 건강상태를 첨단 영농과학으로 알아보는 '토양검정' 무상 서비스를 적극 실시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나선다.

토양검정은 작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토양의 산도, 유기물, 치환성 양이온 등 9개 토양 화학성분의 정밀 분석을 의미한다.

시는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통해 농가들에게 토양시료를 연중 무료로 분석해 작물 및 경작지별 적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토양종합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농작물에 필요한 만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추천해 영농비용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확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환경 보호까지 일석사조(一石

四鳥)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10월말 기준 농가의뢰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2,756점과 쌀소득 보전 등 직접직불제 토양 시료분석 1,295점 등 총 4,051건의 토양 분석을 실시했다.

2025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간 695필지, 5년간 3,475필지의 토양 화학성을 분석하는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연구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사람이 공복에 건강검진을 하듯 수확이 끝나 땅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겨울 농한기가 토양검정 적기로 농가들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상필지별로 10~15군데 지점을 정하여 표토를 제거하고 15~30㎝ 깊이의 작토층을 채취하여 골고루 섞어 그늘에서 말린 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검정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며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기타 토양검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859-432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서해랑길' 걸어 군산 구불길을 만나다

서해랑길 군산 개통식 · 시간여행 에코투어 걷기행사 개최

군산시는 오는 26일 구)시청광장에서 코리아둘레길 중 '서해랑길 군산' 개통식 및 시간여행 에코투어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서해랑길의 군산 3개 코스 개통을 선언하고 걷기행사를 통해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민간 도보여행길 단체 '구불길'이 주관하는 이날 걷기행사는 한국 걷는 길 연합회(회장 최종남/ 원주 굽이길 대표) 소속 회원 30여명과 도보여행 동호회,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시간여행마을 권역길을 함께 걸을 예정이다. 통기타, 퓨전국악, 마술공연과 프리마켓, 공예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코리아 둘레길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을 비전으로 평화·만남·치유·상생의 가치 구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 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 구축한 약 4,500㎞의 초장거리 도보 여행길이다.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 북쪽의 DMZ 평화의 길로 구성돼 있으며 군산이 포함된 서해랑길은 전남 해남에서 강화까지 서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다.

서해랑길 군산은 역사문화와 생태체험의 최적지 도보여행 코스(53코스~55코스)로 청암산 수변길, 도심 은파호수공원, 월명산, 근대시간여행마을, 경암철길마을, 구암역사공원, 금강하구둑 등 다채로운 체험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도보여행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불길(gubulgil.com)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행사당일(11.26)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행사에 앞서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걷는길 포럼이 청년뜰 3층에서 열린다.

연합회 소속 대표 걷는길 단체인 제주 올레길(이사장 안은주), 남해 바래길(팀장 윤문기), 강릉 바우길(사무국장 이기호)이 '코로나시대 걷기여행길의 역할과 방향', '국가 트레일과 지역트레일의 상생', '지역트레일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내용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부송4지구 개발 본격 사업 추진 속도

익산시가 부송4지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23일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문화체육센터 앞에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최종오 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유관기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부송동 일원 29만4천여㎡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 부지는 공동주택 3필지, 단독주택 77필지, 근린생활시설 37필지, 상업용지 45필지, 공원 등이 포함되며 모두 1천671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현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문화재 시굴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

면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024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상시방역 관리 강화

고병원성 AI 가금 농가 일제점검 실시

군산시는 23일 상시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금 농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 예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며 군산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관내 가금농가 전업농을 대상으로 축사전실·농장 울타리, 2단계 소독 및 차량·출입자 통제 등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또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했던 농가의 역학 조사 사례를 분석, 미흡한 방역 관리 부분이 없는지 지도했다

아울러 농장 차단방역 관리가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중요함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농장 출입구에 차단방역수칙 홍보 현수막을 직접 게시했으며 방역활동에 꼭 필요한 방역복, 손소독제, 대인소독약, 일회용 장화 등을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공급했다.

또 시는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주변에 출입을 자제시키고 살수차 2대 및 소독차를 동원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농장 및 소류지 주변을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시민 모두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익산시가 중요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산림보호 및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하반기 국가지정 목조문화재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대상은 관내 목조문화재인 석불사, 태봉사, 심곡사, 문수사 등이다.

이번 훈련에는 익산시 산림과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익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시 문화유산과, 사찰 관계자 등 3개 기관 100여명의 인원과 산불진화차 1대, 소방차 2대가 동원됐다.

목조문화재 주변 산림의 산불발생 상황을 가상해 화재전파를 시작으로

화재진압훈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산 훈련, 응급조치, 사후수습 등 재난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실전과 같이 펼쳤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산림에서 산불발생 시 절대 혼자 끄려 하지 말고, 산불대응센터(063-859-7599), 산림과(063-859-5853)나 소방서(119)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전 지급

군산시는 23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7억을 12월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증을 완료한 결과 9,272명이 지급대상이며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646명(20억), 면적직불금은 7,626명(207억)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시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 부적합농지 신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쌀값하락과 병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24일부터 빨대 플라스틱 등 매장사용 금지

익산시가 이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 규제품목에 대해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등) 및 제과점업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비닐봉투 · 종이컵 1회용품 사용제한 홍보활동

군산시는 지난 21일 전라북도청·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에 따라 합동으로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편의점 등을 방문해 안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3,000㎡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는 우산비닐 사용이 제한되며, 체육시설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군산=김판곤 기자